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4:9-17(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9 그렇다면 이런 행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0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니다.

11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2 그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1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4 만일 세상을 염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도 무가치합니다.

15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여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연히 어기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그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유행을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17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9절에서 바울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요?

→ \_\_\_\_\_

- 9절의 바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10-11절)

→ \_\_\_\_\_

-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17절)

→ \_\_\_\_\_

-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어떤 조건(행위, 배경, 노력 등)이라고 배웠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나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_\_\_\_\_

-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할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4:9-17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와 관련하여, 유대인의 자랑인 할례와 율법이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이후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할례와 같은 외적 증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의미를 놓치는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교회를 가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를 높여 줄 것이라 생각하게 되며, 어쩌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면을 완전히 정결하게 만들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며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성령의 가르침에 민감하도록 도와주소서!

6. 기도